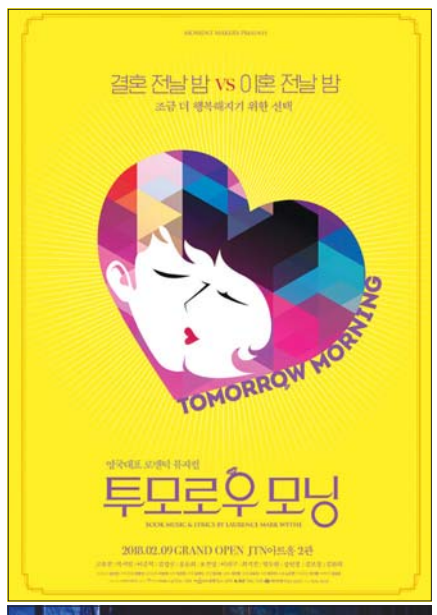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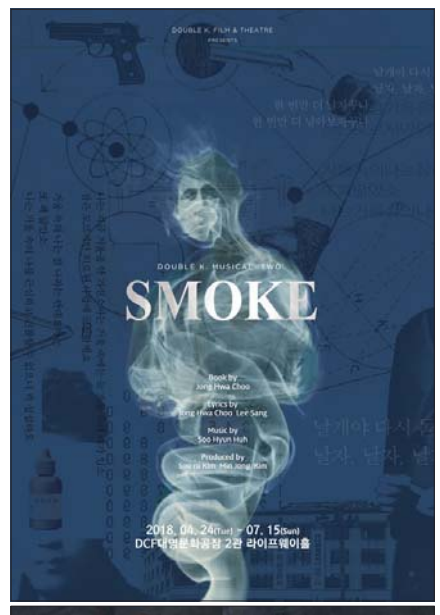
화창한 봄, 대학로서 즐기는 '웰메이드 공연' 나들이

투모로우모닝
사랑 일깨워주는 로맨틱 뮤지컬
스모크
시인 이상의 대표작 무대서 그려
컨설턴트
원작 뛰어넘은 전개·연기 보여줘



투모로우 모닝 무대 모습. /모먼트메이커



뮤지컬 '스모크' 포스터. /클립서비스

연극 '컨설턴트' 연습현장. /나인스토리

화창한 봄 날씨가 마음을 설레게 하는 5월을 맞아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특별한 데이트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공연이 대학로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학로 명품 뮤지컬과 연극을 정리해봤다.

◆ '투모로우 모닝' 데이트 뮤지컬로 딱!

결혼 전날의 커플과 이혼 전날의 부부, 인생 최대의 터닝포인트를 하루 앞둔 두 커플의 버라이어티한 하룻밤을 그린 영국 명품 로맨틱 뮤지컬 '투모로우 모닝'이 가족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작품으로 호평 받고 있다.

커플, 부부, 솔로까지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과 로맨스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믿고 보는 실력파 배우들의 열연과 폭발적인 가창력, 환상의 케미스트리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행복하게 물들인다.

이혼을 하루 앞둔 결혼 10년차 남편 '잭'과 아내 '캐서린'으로 분한 고유진·김경선, 이준혁·홍륜희, 박시범·오진영, 결혼을 하루 앞둔 예비신랑 '존'과 예비신부 '캣' 역을 맡은 이태구·김보정, 최석진·강연정, 임두환·김환희의 열연은 새로운 출발에 대한 핑크빛 설렘부터 현실적인 고민까지 모두 담아 시선을 사로잡는다.

오는 5월 11일 6월 공연 티켓 오픈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JTN 아트홀 2관에서 절찬리에 공연 중이다.

◆ '스모크' 천재 시인 이상 모티브 뮤지컬

지난달 24일 DCF대명문화예술공장 라이프웨이홀에서 개막한 뮤지컬 '스모크'가 웰메이트 창작 뮤지컬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뮤지컬 '스모크'는 근대 문학을 대표하는 천재 시인으로 평가 받는 이상 시인의 작품 '오감도 제 15호'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들어진 작품으로 탄탄한 스토리 전개와 반전, 그리고 배우들의 고밀도 연기로 초연에서부터 화제를 모았다. 이번 재연 무대에는 초연에 참여했던 김재범, 김경수, 윤소호, 정연, 유주혜 배우와 새롭게 캐스팅 된 김종구, 임병근, 박한근, 황찬성, 강은일, 김소향 배우가 함께 참여한다.

게다가 업그레이드 된 무대장치들이 눈길을 끈다. 비밀스럽고 미스터리한 드라마, 웅장하고 매력적인 넘버들, 그리고 인물의 심리 변화를 상징적이고 은유적으로 담아내는 새로운 무대는 '스모크'의 매력적인 관전 포인트다.

'스모크'는 공연계 최고의 콤비로 인정받은 추정화 작·연출과 허수현 작곡·음악감독이 함께 만든 웰메이드 창작 뮤지컬이다. 시인 이상의 '오감도' 외에도 '건축무한육면각체', '거울', '가구의 추위'와 소설 '날개', '종생기', 수필 '권태' 등 한국 현대문학사상 가장 개성 있는 발상과 표현을 선보인 이상의 대표작을 무대 위에 그려냈다. 7월 15일까지 공연된다.

◆ '컨설턴트' 자본주의의 병폐

임성순 작가의 세계문학상 대상 수상작을 원작으로 한 연극 '컨설턴트'가 대학로에서 볼만한 연극으로 손꼽히고 있다.

연극 '컨설턴트'는 무명작가 'J'가 의뢰를 받고 쓴 한 편의 시나리오대로 누군가 실제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이후 의문의 남자 'M'이 찾아와 '회사' 라는 거대 조직의 합류를 권유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긴박감 넘치는 전개와 예상을 뛰어넘는 스토리는 인간의 존엄성보다 경제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병폐를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완벽한 죽음을 설계하는 컨설턴트 'J'와 그런 그를 '회사'라는 미지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관리하는 'M'의 관계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한 개인이 느끼는 무력감과 갈등을 은유적으로 그려낸다.

옥랑 희곡상과 서울연극제 연출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에 빛나는 작가 정범철이 각본을 맡고 '거미여인의 키스'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 등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여온 문삼화 연출이 협업하여 더욱 기대를 모은다. 여기에 대학로를 대표하는 배우들이 합류하여 원작을 뛰어넘는 웰메이드 연극의 탄생을 알렸다.

냉철하고 치밀한 죽음을 설계하는 남자 'J' 역에는 주종혁, 주민진, 강승호가 열연한다. 연습기간 동안 작품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표현해내는 캐릭터 'J'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 세 배우는 인간이 지닌 나약한 면모를 자신의 욕망으로 정당화시키며 점차 괴물화 되어가는 그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해낸다.

7월 1일까지 대학로 TOM 2관에서 공연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국립현대미술관 '아크람 자타리' 한국 첫 사진전

레바논 사진작가 '사진에 저항하다'展

국립현대미술관이 바르셀로나현대미술관과 공동주최로 '아크람 자타리: 사진에 저항하다'展을 11일부터 8월 19일까지 서울관 제 5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아크람 자타리: 사진에 저항하다'는 시각아카이브를 창의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술로서의 수집'을 동시대미술 안에 중요하게 자리매김 시킨 레바논 출신 작가 아크람 자타리(Akram Zaatari)의 한국 첫 개인전이다.

아크람 자타리는 사진 매체의 정체성을 창의적 방식으로 교란시키고, 재해석하고, 새롭게 각색함으로써 사진 아카이브에 새 생명을 부여하는 작업을 해왔다. 1995년 이래 작가는 사진을 평면 인쇄물이 아닌 입체적인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해오고 있으며, 이와 함께 '아카이브'를 이용해 역사와 기억을 재구축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바르셀로나현대미술관을 시작으로 독일 K21 현대미술관을 거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세 번째 전시가 개최된다. 올해 가을에는 이집트 사르쟈미술재단으로 옮겨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박지성, 韓 축구 부흥 위해 해설위원으로 나선다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이 약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지성이 SBS 해설위원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SBS는 9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박지성이 해설 위원으로 나선다"며 "오는 16일에 일시 귀국해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성은 현역 시절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에서 맹활약을 이어가며 '영원한 캡틴', '한국 축구의 레전드'라는 수식어로 불렸다.

2014년 은퇴 이후에는 축구 행정가의 길을 걸으면서 동시에 한국 축구 발전에 전념해왔다. 형편이 어려운 축구 꿈나무들을 육성하고, 유소년 축구대회 JS컵 개최와 AFC U-19 챔피언십 본선을 준비하는 대표팀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 축구 사랑을 실천해 온 그가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해설위원으로 변신해 자신의 네 번째 월드컵 출전과 함께 최근 다소 침체돼 있는 한국 축구 부흥을 위해 기여할 계획이다.

박지성은 "해설에 대한 제안을 오래 전부터 받아왔고, 행정가로서의 장래와 한국 축구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축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는 것도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응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min0812@

박지성. /SBS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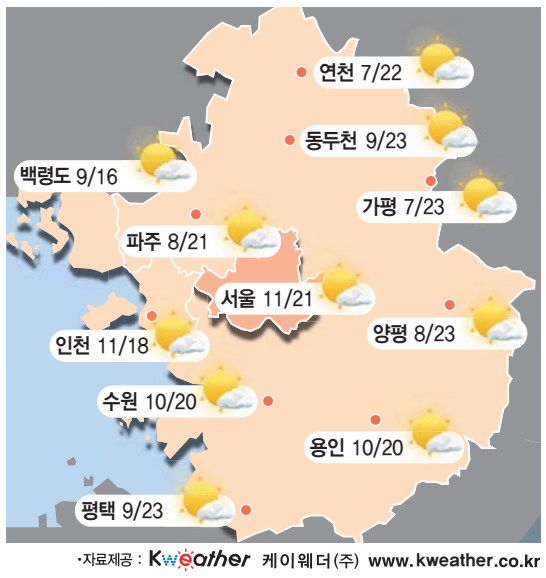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5:34 | 해짐 / 19:24

5월 10일
음력 : 3월 25일

수도권 날씨
21 ~ 11℃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스포츠 한줄 News

▲ 대한배구협회가 '배구여제' **김연경(사진)**에게 적절한 휴식을 약속했다. 김연경은 5~6월에 열리는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 네이션스리그에 아시아에서 개최하는 대회만 출전하고 유럽, 남미서 치르는 대회는 불참한다.

▲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홈경기에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을 수확, 2경기 연속 타점을 올렸으나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다.

▲ **한국 19세 이하(U-19) 축구대표팀**이 내달 26일부터 프랑스에서 열리는 툴롱컵 국제대회를 앞두고 오는 20일 소집된다. 재활 중인 정우영은 제외됐다.

▲ KBO가 10개 구단 선수들의 방망이를 일제히 점검한 결과 7명이 쓰는 배트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 스웨덴 세계선수권대회(단체전)에서 27년 만의 여자 '남북 단일팀'을 재현했던 **탁구대표팀**이 오는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시험 무대인 국제탁구연맹(ITTF) 투어 대회에 출격한다.

▲ '슈퍼매치의 영웅' FC서울의 외국인 선수 **안델손**이 프로축구 K리그1 12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